

건강 칼럼

북한의 영화산업

**최** 근 북한의 영화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영화는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이런 북한 영화계가 지난 4월 6년 만에 신작을 발표했다. 이 신작 영화의 주인공에 신인 여배우가 기용돼 눈길을 끌고 있다. 북한도 시기별로 영화계를 이끈 여배우들이 있다. 이번에 등장한 신예배우가 북한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거란 평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북한의 한 영화관은 신작 개봉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주민들의 기대 속에 6년 만에 세 예술영화 '하루낮 하루밤'이 공개됐다.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나라를 배신하려는 간부의 속셈을 눈치 챈 주인공이 이를 폭로하는 과정을 그렸다. 주목할 건 이렇게 공을 들인 영화의 주인공이 신인 여배우라는 점이다.

이름을 포함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얼굴이 알려진 배우가 아니라는 점은 더욱 흥미롭다. TV 드라마 분야에서도 신인 발굴이 이어졌다.

최근 종영한 연속극 '마지막 한알'은 1970년대 세계 탁구대회를 제패한 탁구여왕 박영순의 생애를 다루었다. 이 드라마에서도 신예 리효심이 주인공 역을 했다.

평양연극영화대학 재학생인 리효



정복규  
논설위원

심이 데뷔작으로 단독 주연을 맡은 건 경력과 연륜을 중시하는 북한 영화계에선 파격적이다.

북한 영화계에선 주연급 여배우가 절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남다른 역량을 발휘한 여배우들이 있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을 적극 활용해 왔다. 일제 치하 1930-40년대 영화계를 주름잡던 문예봉도 그중 한 명이다.

해방 이후 월북한 문예봉은 북한 최초의 극영화 '내 고향'을 비롯해 다수의 영화에 출연했다. 영화산업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영화광으로 잘 알려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영화의 선전 선동 역할에 주목했다. '피바다', '꽃 피는 처녀' 등 혁명극을 영화화해 김일성 주석을 우상화했다. 주체사상을 영화 제작에 접목한 '영화예술론'까지 내놨다.

하지만 북한 영화는 결국 체제 선

전에 매몰됐고, 그에 따라 배우들의 연기도 정형화, 도식화해 갔다. 북한 영화는 1970년대 침체기에 빠졌다. 여기서 다시 한 번 고약한 수법을 꺼내 들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여배우, 최은희를 납치한 것이다. 북한은 최은희에 이어 남편인 영화감독 신상옥도 납치했는데, 2016년 개봉한 영화를 통해 김정일 위원장이 사주한 사실이 드러났다.

신상옥과 최은희는 집단창작 중심의 북한에서 개인의 개성이 드러나는 새로운 방식의 영화를 제작했다. 특히 최은희는 영화 '소금'으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1986년, 신상옥과 최은희가 탈출하면서 북한 영화는 또다시 쇠락한다. 최은희의 빈자리를 채우고 활력을 불어넣은 여배우는 바로 오미란이다. 섬세한 감정표현으로 김

정일 위원장의 총애를 받은 오미란은 1987년 개봉한 영화 '도리지꽃'으로 단숨에 대표 여배우가 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여배우의 활약은 더욱 두드러진다.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2016년에 공개한 '우리 집 이야기'다. 중학교를 갓 졸업한 여주인공이 이웃집 고아 남매를 돌본다는 내용이다.

개봉과 동시에 여배우 백설미는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우리집 이야기'의 감독은 그 어느 때보다 주인공 발탁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후 백설미는 제15차 평양국제영화전에서 여자 연기상을 수상하며 초고속 성공 거도를 달렸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매 시기마다 여배우들을 영화산업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북한 영화의 목적은 최고지도자 우상화와 체제 선전에 있다. 그런 만큼 여배우만이 전달할 수 있는 감성적인 메시지에 주목한다. 기성세대에 비해 사상이 약화된 청년 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젊은 여배우를 적극 기용한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여배우들은 시대마다 영화계에 영향력을 미쳐 왔다. 특히 여배우 개인에 대한 인기도 이전보다 커지고 있다. 이때다 등장한 신인 여배우들이 어떤 영화와 드라마에서 어떻게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주리주 홍수, 침수 차량 물기 말리는 주민



미 미주리주 일부 지역에 발생 내린 폭우로 홍수가 발생해 지난 4일(현지시간) 제퍼슨 카운티의 한 주민이 침수됐던 자동차 내 물건의 물기를 말리고 있다. 이 여성은 "오늘 아침 허벅지까지 들어찬 물속을 걸어 나왔다"고 말했다.

종교 구호 외치는 카슈미르 시아파 무슬림들



지난 4일(현지시간) 인도령 카슈미르 스리나가르에서 무하림 행렬에 참여한 카슈미르 시아파 무슬림들이 종교적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무하림은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의 손자인 이맘 후세인의 순교를 추모하는 행사다.

사설

지방대학 반도체학과 설치 문제

반도체 학과 정원을 수도권 대학에 확대하기로 하면서 지방대학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다.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년간 15만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 인력은 17만 7000여 명에서 10년 후 30만 4000여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보다 12만 7000여 명 신규 인력 수요가 발생한다.

정부는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을 2027년까지 5700명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학제별로 대학 학부 2000명, 직업계고 1600명, 대학원 1102명, 전문대 1000명 등이다.

문제는 반도체 학과 신·증설 시 교원 확보란 충족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정부 방침에 지방대학 소멸 우려가 더 커진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간 양극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는 지역인재 유출, 기업 유치 난관 등 지역사회 위기로 직결되는 문제다. 지역 균형 발전 저해 등 후폭풍도 예상된다.

그동안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 시설로 분류돼 정원 총량 규제를 받아 왔다. 비수도권 대학 입장에선 최소한의 지역인재 유출 방지책인 셈이다.

하지만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학부 증원이 예상되는 2000명 중 상당수가 수도권 대학에 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방대학들은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증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는 계속 유지하며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규제가 계속 완화되면 지방은 더욱 낙후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대학 홀린 현상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전주 수한방병원 이웃사랑

전주 수한방병원의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이 귀감(龜鑑)이 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취약계층에 전달해달라며 사랑의 선봉기 200대를 전주시에 기탁했다. 선봉기는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입선영 병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힘든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꾸준한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이뤄나가겠다."고 전했다.

입 원장은 소외된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봉기를 기탁하고 있다. 한국노인복지봉사회 전주시지회 후원회장인 입 원장은 해마다 전주시지회장 정인스님, 입현기 도지회장과 협력해 나눔 실천을 하고 있다.

입 원장은 △독거노인 및 암 환자 위안잔치 △저소득 학생 장학금 후원 △취약계층 건강 기능식품 지원 등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1백 명 돕기 위문공연 및 나눔의 잔치를 열기도 했다. 특별 이벤트로 함께 진행된 입선영 원장의 무료 건강 상담은 큰 호응을 얻었다. 한방 파스와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도 함께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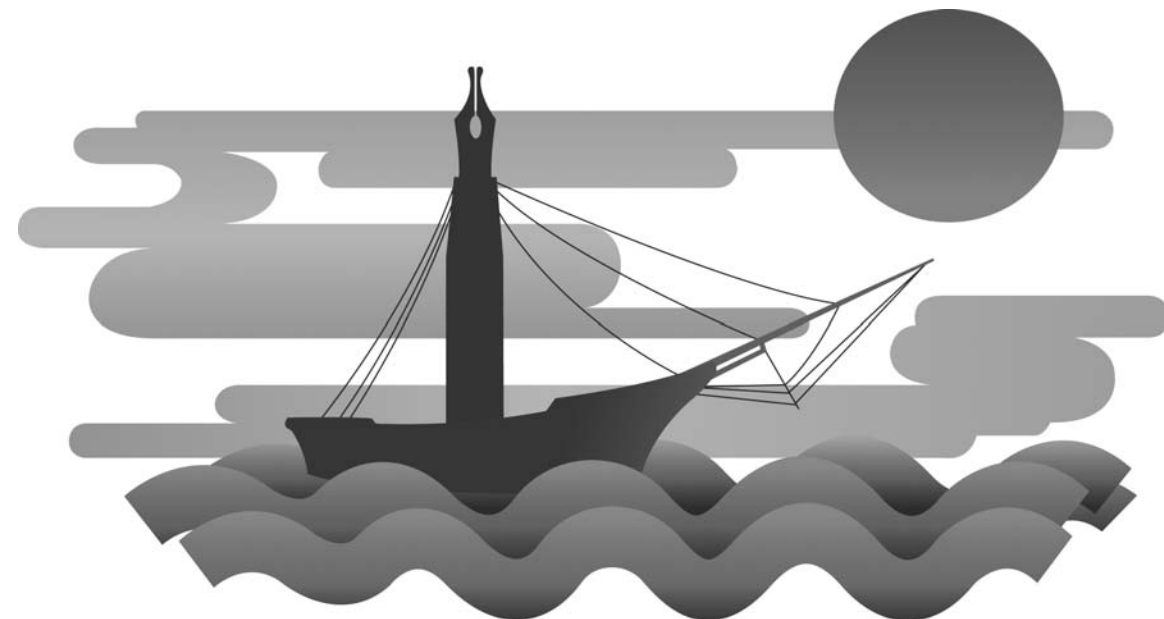
전주 수한방병원은 양방과 한방의 협진을 함께 운영하는 병원이다. 지난 2010년 개원한 이래 척추 및 관절 질환, 교통사고 환자, 재활 치료, 그리고 항암 치료 등에 특화된 병원으로 성장해 왔다.

봉사는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소외계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보다 살기 좋은 사회로 거듭나는 법이다.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세상을 밝게 한다. 입선영 원장은 더욱 정진하여 참된 봉사자의 길을 가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는 봉사인의 삶을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